국토교통부,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

- 17일 풍수해 대응상황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현황 점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**7월 17일** 저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풍수해 종합상황실에서 **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**을 점검하고 ITS 관제센터를 찾아 관내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**실시간 모니터링 체계**를 점검하였다.

□ 먼저,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 현장을 찾은 **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**은 **5개 국토관리청**(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)과 함께 **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**를 개최하여, 논산 인근 국도 1호선 및 포천-화도 민자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등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였다.

○ 박상우 장관은 “17일 밤부터 주말까지 **전국적으로 강한 비**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,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”면서,

- 특히, “**비탈면 유실, 옹벽 붕괴**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**취약 구간**은 **반복해서 점검**하는 등 **최고 수준의 경각심**을 가지고 **24시간 비상대응 태세**를 **철저히 유지**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□ 이어서, 박 장관은 **서울국토관리청 ITS 관제센터**를 방문하여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**실시간 모니터링 체계**를 **점검**하였다.

○ 박 장관은 “최근 발생한 **극한호우**의 특성상, **하천 인근 지하차도** 등 침수 우려구간에 대한 **집중관리**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○ “**첨단교통체계**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**교통 상황**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, **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**을 통해 국민들에게 **도로 차단 및 우회** 등 조치 사항을 **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**”을 지시하였다.

2024. 7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